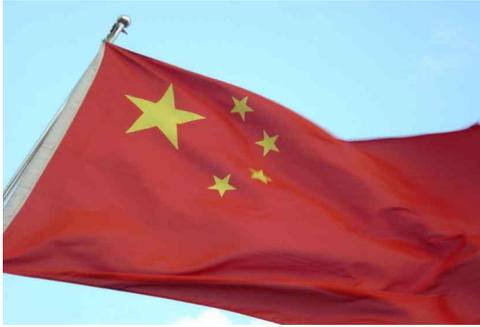




[교역동향] 中 유제품 수입, 우루과이로 눈 돌려

- 뉴질랜드·미국과의 정치적 갈등 고조로 새로운 수입국 모색



대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뉴질랜드도 중국의 행보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중국이 유제품 수입을 위해 우루과이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아르헨티나의 컨설팅 업체 쿼터라(Quarterra)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08년 뉴질랜드와 FTA 체결 후 지리적 근접성으로 유제품, 특히 전지분유를 수입해왔으며 미국에서도 유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한편, 최근 정치적인 이유로 해당 국가간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이 우루과이산 전지분유 수입을 늘릴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2010년부터 우루과이로부터 전지분유를 수입해온데 이어 지난해 수입량이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며 뉴질랜드에 이은 최대 전지분유 공급국가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루과이의 전지분유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이를 철폐하기 위한 공식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 출처 : dairyherd.com, 8월 19일 >

[시장동향] 英, 인플레이션 부담에 UHT 우유 판매 증가세

- 저온살균 우유 대비 가격이 저렴해 판매량 증가 전망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영국에서 비교적 보관이 용이한 UHT(초고온살균) 우유 판매량이 급증한데 이어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에 가계 부담이 가중되면서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영국 농업원예개발공사(AHDB)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19 확산 초기 봉쇄령에 따른 사재기 현상으로 비교적 오랜 기간 보관이 가능한 UHT 우유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두기 완화 이후 판매가 주춤해졌으나 여전히 팬데믹 이전 대비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물가상승률이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저온살균 우유 대비 리터당 가격이 저렴해 판매량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재료를 구입해 소비자가 직접 만들어 먹는 '스크래치 쿠킹(Scratch Cooking)'이 재유행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UHT 우유는 물론, 육류, 스프 등 보관이 용이한 통조림 식품 판매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thecattlesite.com, 8월 20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